

목 록

20231010082706.....	1
20231010082720.....	3

‘그냥’ 아니라 ‘왜’

조현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길을 걷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나?, 아니면 꺼내 놓나?” 할아버지는 “예끼 이 바보같은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졌네.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 채 몇십년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니본 적이 없었거든. “허어,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수염을 꺼내 놓고 있나, 넣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겠답니까만 했지,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글세나. 어 참, 이 녀석, 별걸 다 묻구나. 정 궁금하다면 말이다. 오늘밤에 한번 자 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라.”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말아야. 그런데 너무 갑갑해서 견디어서 아무래도 수염을 밖에 내놓고 차야 할지 같았어. “옹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산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이른 수면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감아봤어.

그런데 불편한건 마찬가지였어. 이불 밖으로 내놓은 수면 때문에
왠지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거야.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은 이룰수가 없었지. 수면을 이불로
덮고 감아봤어.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면 허전해...

할아버지 밤새도록 수면을 뺐다 꺼냈다 하니까 한숨도 쉴
수가 없었다. 물론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에 천천히 깬
다고 했던 아이와의 갈등도 심각했지. 이상한 일 아니?
보통 그런 할아버지 자신의 수면야. 할아버지 낯선 동안 자면
배워서 알고 물어보는게 좋아. 그런데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면을 어떻게 하긴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던거야. '그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 보고
한들 누가 가르쳐줄 수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답하고 기막힌 일
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 보니까 수면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저 기억은 이야기대로 웃어 보일 일이 아니야.

가끔씩 생각해 보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수면이 있는지 물어
아이들에게 무슨 수면이 있냐? 이니도 그렇지 않아. 너도 너
질문을 물어 보면 '하' 라는 대답을 하곤 하지.

바로 그 '그' 라는 말이 너의 수면이란 거잖아? (아주 궁금하지?)
우리는 아무생각없이 '그날' 시내는 날이 얼마나 조용히 돌아,
그냥 말,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날이야. 어떤 때에 봄이와서

꽃이 피어도, 다름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흘려 보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 새들이 어떻게)

찍을 지어 날아가고, 구름이 어떻게 모였나까 흩어지는지 몇번이나
눈여겨 보았는지? 자신에게 또는 남들에게 묻는 일을 몇번이나
질문해 보았나? 남들이 해니까 그냥 따라 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있었나? 자기 안에 돌봄이 없애
아무것도 묻지 못한 사람은 갇혀서 빛과 단락을 누르면
그냥 복을 치대는 공인형과 널은 다를 것이 없어.

아무생각 없이 모든 순간을 순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야기속 흩어버린다. 무나.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수업을 날려 주니까 같이다.